

설교 /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시103:13-18)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써,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을 모두 물려받은 존재입니다. 비록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품고 살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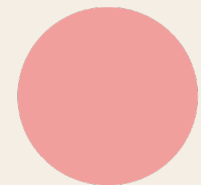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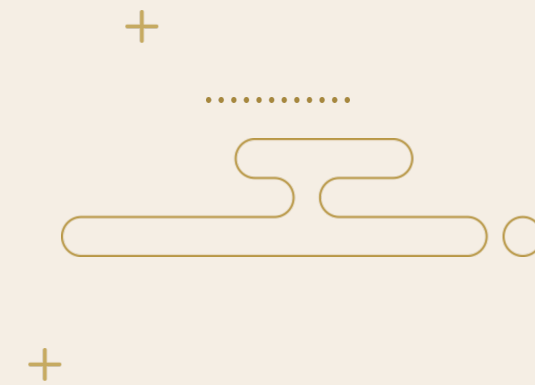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부모의 사랑을 빗대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부모가 늘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고, 안쓰럽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속 사정과 상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숨은 생각과 마음을 모두 읽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정하다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우리의 인생이 금방 시드는 풀과 같고, 아무리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여도 한 철 피고 지는 꽃과 같다고 노래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다 먼지 같이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분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삶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서 무얼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 설날 가정예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배로 부름 / 인도자

설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 100:4-5)

찬송 / 28장(통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 하기 쉬우니 /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 / 말은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올해도 주님의 은혜로 설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봅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쉴 수 있는 거처와 함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깨닫게 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아픔들이 있지만,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아주시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 시편 103:13-18

- 13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 14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 15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 16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 17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 18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설교 /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설교문은 뒷면에 있습니다.)

찬송 / 559장(통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축복의 말씀 / 부모가 자녀에게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